

研究論文

성리학 전통에 비친 대한민국의 건국*

이 영 훈**

I. 문제제기	VI. 급수가 찾아오다
II. 위정척사의 계승자들	VII. 남선단독정부의 수립
III. 은둔의 일상	VIII. 전통의 행방: 결론을 대신하여
IV. 소중화의 역사학과 철학	<참고문헌>
V. 역사와 함께 오래된 원수	<국문요약>

I. 문제제기

1945년의 해방에서 1948년의 건국까지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은, 이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겠지만, ‘민주’와 ‘공산’의 두 정치이념으로 나뉘어 서로 자기 이념에 입각한 국가를 세우려고 싸웠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주’라는 정치이념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종래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새김에 있어서 간과되었던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당시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 모두가 ‘민주’와 ‘공산’ 어느 한 쪽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립이라 해도 좋을 제3의 집단이 있었다. 양적으로는 그 편이 다수였는지 모른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크게 말해 ‘민주’는 미

* 이 논문의 초고는 2008년 8월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민주공화국의 탄생’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동아대학교의 이훈상(李勳相) 교수가 토론을 맡아 주었는데, 그 토론은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사 전공(yhrhee@snu.ac.kr).

국에서 ‘공산’은 소련에서 수입된 정치이념이었다. 수입의 역사는 아무리 올라가도 개화기를 넘지 않으니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양적으로 다수였을 수 있는 중립 집단에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임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

1910년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편입된 이래 ‘식민지적 근대화’라고 할 만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근대화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지만, 현상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생긴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식민지적 근대화’는 주로 일본인이 집주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농촌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었지만, 그 파고는 그리 높지 않았다. 농촌사회는 여전히 ‘전통’의 강한 규정 아래에 있었다. 총독부 권력은 농촌사회를 포섭하고 있는 ‘전통’에 대해 줄곧 유희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총독부가 ‘전통’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시체제(戰時體制)가 본격화하는 1937년부터였다.

식민지기의 ‘전통’에 규정된, ‘전통’을 잇는다고 할, 정치이념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학의 참고문헌은 그리 풍부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최우선의 후보로서 유교 또는 조선성리학을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 대종교, 천도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들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었다기보다 서로 얽혀 있었다. 그 얽힘과 관련해서는 이들보다 훨씬 장구한 역사를 지닌 무속, 미륵신앙, 풍수지리와 같은 원(元) 전통이 보이지 않은 영향력으로 작용하였을 터이다.

‘전통’이 ‘민주’와 ‘공산’이 서로 싸울 때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관해서도 참고할만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처음에는 싸움을 관망하다가 ‘민주’ 쪽으로 대세가 기울자 그에 편승한 세력이 있었다. ‘공산’에 호감을 가졌다가 ‘민주’가 승리하자 끝내 등을 돌린 세력도 있었다. 처음부터 양쪽 다 엉터리라며 끝까지 중립을 고수한 세력도 있었다. 어쨌든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차별을 보인 ‘전통’을 배제하고서는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건국까지의 파란만장했던 정치사를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하기 힘들다.

그 뿐만이 아니다.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전통’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건국의 역사를 두고 오늘날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은 많이 분열되어 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의 건국사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른바 진보 진영은 ‘건국’이란 개념이나 용어 자체를 용

인하지 않는 듯하다. 이 같은 대립은 2008년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드러났다. 보수를 대변하는 집권세력이 예년의 광복절을 ‘건국60주년’으로도 기념하고자 했을 때, 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전체가 기념식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 분열의 심각함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과연 ‘국민적 일체성(national identity)’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미 몇 사람의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직까지 보수와 진보 내지는 좌우익의 논쟁이 있다는 것이(sic) 정치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민적인 일체성이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네이션이 형성되었는지를 의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¹⁾

지적된 대로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국민적 일체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애당초 건국 과정을 관망만 했거나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우호적이었던 ‘전통’ 세력의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국 이후에도 분단된 남과 북의 입장을 대변하여 ‘민주’와 ‘공산’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공산’의 패배가 결정적이 된 이후에도 ‘민주’의 승리는 확정적이지 않았다. 잠복해 있던 ‘전통’이 슬슬 표면 위로 부상하면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건국 당시에 작성된 농촌 유생들의 개인 일기를 분석한다. 그들은 위에서 정의된 ‘전통’의 중심을 이룬 조선성리학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전통’에 비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것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은 이 같은 물음에 이끌려 농촌 유생들의 일기를 일상생활에서부터 역사관 및 정치인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고 쪼개어 본 것이다.²⁾

1) 김기승(외), 『국가건설사상Ⅱ』(인간사랑, 2006), 34쪽.

2)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致齋日記』와 『定岡日記』 이외에 해방 후 건국기에 걸치는 농촌 유생의 한 문으로 쓰인 일기로는, 필자가 알고 있는 한, 『退修齋日記』(국사편찬위원회, 2007)와 『林祖洙日記』(미간행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기회로 미룬다.

II. 위정척사의 계승자들

치재(致齋) 김인수(金麟洙)는 1892년 충청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태어났다. 1903년 12세 때 충북 증원군 사미면 오당리로 이주하였다. 치재의 일기는 그의 나이 19세인 1911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농촌 유생이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부조(父祖)의 명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늙거나 병든 부조가 가독권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넘겨주는 의례에 해당하였다. 일기 초두에 부친의 병환에 관한 기사가 자주 관찰되어, 치재의 경우도 그러했다고 보인다. 그렇게 시작된 일기는 치재가 1962년 사망하기까지 51년간 지속되었다. 이를 검토한 박성수(朴性洙)에 의하면 그 사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하니,³⁾ 이로부터 치재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광산(光山) 김(金)인 치재의 직계 선조 가운데는 뚜렷하게 현달한 사람이 없었다. 치재 자신의 표현으로 그의 가문은 “청문냉족(淸門冷族)으로서 쇠미하여 떨치지 못하였다.” 아버지 영순(永淳) 대는 가계가 빈한하여 거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가뭇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을 두고 치재는 “조상 때부터 효제(孝悌)하고 근검하고 덕을 세워 복을 심은 나머지의 음덕(蔭德)”이라고 하였다.⁴⁾ 이 같은 가정 형편에서 치재의 본격적인 수학(修學)은 많이 늦었다.

그는 1922년 30세에 항재(恒齋) 이정규(李正奎, 1865~1945)를 찾아 그의 문하에 들었다. 항재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에서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과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를 거쳐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으로 이어져 온 위정척사(衛正斥邪)의 화서학파(華西學派)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항재는 의암에 직접 사사하였으며, 의암이 1895년 을미의병(乙未義兵)을 일으키자 종사관(從事官)으로 스승을 배종하였다.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항재는 1945년 사망할 때까지 고향에 은둔하면서 화서학파의 수구정신(守舊精神)을 고수하였다. 치재는 항재의 문하에서 3년간 수학하였으며, 이로써 화서학파를 잇는 인물의 하나가 되었다.

1925년 치재는 다시 한번 주거를 옮겨 증원군 동량면 하곡리에 우거하였다. 우거의 계기는 역시 항재와 같은 은둔이었다고 보인다. 아들 용숙(容肅)에 의하면 치

3) 『致齋日記』(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解題, 3쪽.

4) 『致齋日記』(二), 『致齋集』 示兒孫.

재는 왜정(倭政)의 세상을 한탄하면서 동량면 하곡리 개천산 기슭에서 두문불출하였다. 그 사이 전통적인 의발(衣髮)을 고수하고, 일체의 양물(洋物)을 거부하였다. 일기에 의하면 치재가 문자 그대로 두문불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전통’을 찾아 활발히 이동하였다. 그가 기다렸고 또 거르지 않았던 연중 두 차례의 외출은 매년 3월 20일 전후와 9월 20일 전후에 열린 제천 자양영당(紫陽影堂)에서의 석채례(釋菜禮)였다. 자양영당은 회암(晦庵) 주자(朱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화서, 성재를 배향한 곳으로 충북 일원에서 화서학파를 결집시키는 중심이었다. 자양영당에서 거행되는 춘추 석채례는 치재가 이 세상을 사는 정신적 보람이었다. 51년이나 지속된 치재의 일기는 그의 사후 31년에 세간에 공개되었다. 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 자료를 『치재일기(致齋日記)』라는 이름으로 영인 보급하였다.⁵⁾ 그것이 이 논문의 한 가지 자료이다.

다른 한 가지 자료는 『정강일기(定岡日記)』이다. 정강(定岡) 김주현(金胄現)은 김해(金海) 김(金)으로서 1890년 전라도 장흥군 남상면 관지리의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이후 성장기는 부친의 고향 완도에서 보냈는데, 1924년부터 관지리로 다시 옮겨와 영구 정착하였다. 부친 민환(珉煥)은 말직이나마 완도의 원릉(元陵) 참봉(參奉)과 내수사(內需司) 별제(別提)를 역임하였다. 그만한 관력(官歷)에서 가정 형편도 200두락 정도를 소유한 소지주로서 약간의 여유를 누릴 만 하였다.

정강은 어려서부터 일헌(一軒) 김태한(金台漢, 1847~1913)에게 배웠다. 일헌의 스승은 화서의 후계인 중암이었다. 정강은 동향의 잠계(潛溪) 백형기(白亨機)와 강진의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잠계와 경회 역시 중암에게 수학하였다. 경회는 ‘호남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이러한 인적 배경에서 정강 역시 치재와 마찬가지로 화서학파의 맥을 잇는 인물이었다. 일기에 의하면 1947년 12월 18일 정강은 중암,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간재(艮齋) 전우(田愚), 경회 등의 친필 서한을 하나의 첩으로 만들었다. 그의 학맥을 상징하는 작품이었던 셈이다.

정강은 48세의 늦은 나이인 1938년 5월 23일부터 일기를 적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일기는 왜정이 구력(舊曆)을 폐하고 신력(新曆)을 시행함에 따라 “날짜를 잃

5) 『致齋日記』의 개략적 연구로서는 다음의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다나카 류우지(田中隆二), 「일제하 해방후 농촌 지방유생 金麟洙의 시대인식」, 『釜大史學』, 22(1998), 335~358쪽.

을 위협”이 있기에 일기를 시작한다고 적고 있다(1938년 5월 23일, 이하 38.5.23으로 약기함, 음력임, 이하 마찬가지로임). 1938년부터 구정 과세가 금지되고 신정이 강요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왜정에 대한 분노와 반발로 시작한 일기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본 1948년 연말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일기는 중단되었으며, 정강은 그 이듬해인 1950년에 사망하였다. 애당초 그에 의해 『정강일기』로 이름이 붙여진 일기는 아들 동홍(東鴻)이 소장하다가 1986년에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미간행 자료로서 여러 곳에 복사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촬영한 복사본을 활용하였다.⁶⁾

III. 은둔의 일상

하곡리에 우거한 이후 치재의 가정경제가 어떠했는지를 일기로부터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작인들로부터 도조를 수취하거나 작인으로서 도조를 지불하지는 않았다. 살림이 궁하여 양식과 돈을 꾸거나 거꾸로 여유가 있어 빌려주는 일도 없었다. 그런대로 뼈뺏하게 자존할 만한 자작농의 처지였다고 짐작된다. 해방되던 1945년은 극심한 흉년이였다. 이듬해의 춘궁기를 맞아서는 “하늘보다 높아 보이는 보리 고개”를 어찌 넘을지 걱정할 처지였다(46.3.18). 1947년 10월 둘째 아들을 분가시킬 때 나누어준 재산은 봄부터 지은 초가 3칸이 고작이었다. 동일자 일기에서 치재는 가정을 책임진 지 40년에 가산을 확충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을 부끄러워하였다(47.10.29).

치재의 가정생활은 19세기까지 주경야독하는 선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쟁기갈이,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나무하기와 같은 중노동은 대개 머슴과 젊은 아들의 몫이었다. 치재는 주로 짚신삼기, 자리짜기, 가마니짜기, 새끼꼬기, 꼴쓸기, 별기르기, 돼지먹이기, 누에치기 등 다양한 형태의 가내공업에 종사하였다. 40대

6) 『定岡日記』의 해제와 연구로서 다음의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김희태, 『『定岡日記』: 일제말~광복 직후 장흥 유생의 일기』, 역사문화학회(편), 『지방사와 비장문화 I』(학연문화사, 1998), 359~373쪽; 金英喜, 「일제 말기 향촌 儒生의 ‘日記’에 반영된 현실인식과 사회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4(2000), 91~130쪽.

이후 인근 장시에 출입하는 일은 주로 장성한 아들이 담당하였다. 1939년에는 면 사무소로부터 낙엽송 1천 본을 불하받아 직접 심기도 하였다(39.2.15).

안방에서 영위된 부인의 베풀기는 1950년대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1949년 11월의 일기에서 치재는 “규방에서의 방적은 고금의 정리(定理)”라고 한 다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방적사가 얼어붙어 고생하는 부인을 보고 “누가 농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던가, 지금 보니 방적의 어려움이 더하다”라고 적었다(49.11.5). 그의 가정경제는 전통시대의 남경여직(男耕女織)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반면에 정강은 200두락 정도를 보유한 소지주로서 직접 농업노동이나 가내공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로 머슴과 일고들의 노동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추수가 끝나면 주변의 작인들로부터 도조를 수취한 기록이 일기에 등장하는데, 작인 가운데는 친인척들이 적지 않았다. 정강의 지주경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여 1940년대에 그의 소유지는 60~70여 두락으로 줄어 있었다.⁷⁾ 그렇게 된 데는 전시통제기에 강요된 공출도 한 몫의 원인이었다. 수입이 주는데 지주가의 번다한 지출은 여전하여 정강은 여러 차례 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마다 정강은 물려받은 재산을 축 내는 부끄러움을 일기에 적었다.

농한기가 되면 치재와 정강의 일상은 농촌 유생의 그것으로 변화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개인적 소질 때문인지, 치재는 독서와 문장에 그리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일기에서 확인되는 그의 독서 빈도는 뜸한 편이며, 독서의 대상도 주로 스승과 선배의 문집류에 국한되었다. 문장에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동학들이 1947년 스승 향재의 전기를 지을 때 “능히 한 마디도 찬(贊)하지 못하였다”(47.1.24). 반면에 소지주로서 여유를 누린 정강의 독서생활은 보다 적극적이었고 수준도 높았다. 그는 자주 퇴계(退溪)의 성학십도설(聖學十圖說)을 암송한 다음, 빠진 곳이 없음을 들어 스스로 방심하지 않았다고 기뻐하였다(45.5.10; 46.7.3). 정강의 학문은 주곡정사(舟谷精舍)라는 서실의 경영으로 명성을 더하였다. 1940년 문을 연 정사에 매년 6~7명의 학동들이 모여들었다. 서실은 정강이 죽는 1950년까지 열렸으며, 그 사이 도합 70여 명의 제자가 배출되었다.⁸⁾

두 사람의 일상으로부터 ‘전통’을 강하게 발견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이른바 봉

7) 金英喜, 위의 논문, 99쪽.

8) 이후 그들에 의해 定岡의 기념비가 마을 입구에 건립되었다. 金英喜, 위의 논문, 98쪽.

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의 생활윤리에서였다. 치제는 내외사조(內外四祖)의 기제(忌祭)를 맞아서는 전날부터 망극한 슬픔 속에서 공경히 선인들을 추모하였다. 정강가의 제사례는 일층 정중하였다. 제사를 맞은 정강은 전날부터 두문불출하고 몸을 씻은 다음 스스로 축문을 지었다. 제사는 한 밤중에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거행되었다. 일례로 1938년 6월 1일의 일기는 “조고(祖考)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호참부군(戶參府君)의 제사이다. 자시(子時)에 제사를 행하여 닭이 울 때에 신(神)을 보냈다. 이는 우리 집의 내려오는 예이다”라고 하였다(38.6.1).

엄격한 봉제사는 활발한 친족생활로 이어졌다. 하곡 우거기의 치제는 매년 3월 20일과 9월 20일 전후에 1주일간 원거지인 괴산 오가리와 중원 오당리 일대에 분포한 조상들의 묘를 찾았다. 일기에서는 이를 ‘고산지행(故山之行)’이라 하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고산지행’이 통과하는 마을마다에는 그의 가깝고 먼 친족들이 살았다. ‘고산지행’은 원근 족친들과의 인사를 닦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몇 년에 한 번씩 ‘고산지행’은 황해도 장연까지 뻗었다. 장연에 소재한 광산 김문 광원군파(光原君派)의 묘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식민지적 근대화’에 힘입어 버스가 다니고 철도가 부설되었다. 그러자 전국에 흩어진 동일 파조(派祖)의 광산 김문들이 장연에 모여들었다. ‘식민지적 근대화’가 ‘전통’을 부지(扶持)하거나 강화하는 관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정강은 ‘고산지행’을 하지 않았다. 거주지 관지리 부근에 조상들의 묘가 분포하였던 모양이다. 묘제의 대상은 11대조부터였다. 1948년 10월 9일 정강은 아들 동홍으로 하여금 6대조와 5대조의 묘제사(墓歲祀) 축문을 베끼게 했다(48.10.9). 16일은 동홍과 두 조카로 하여금 광대동 11대조와 10대조의 묘제사에 참여케 했다. 그날 오후 정강 자신은 몸을 씻고 목단산에 있는 8대조의 묘제사 축문을 썼다(48.10.16). 정강의 일년은 4대조 내외의 기제 봉행과 11대조까지의 묘제 주관과 참례, 그리고 다수의 명일제(名日祭)로 이어진 그야말로 제사의 연속이었다.

이 점은 치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강의 친족생활에서는 치제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활발한 족계(族契) 활동이 그것이다. 타지에 우거했던 치제와 달리 정강을 둘러싼 내외 족당은 풍부하였다. 정강은 대소문계(大小門契), 단산계(端山契), 모선계(慕先契), 존본계(存本契), 수연계(修姍契) 등 다양한 형태의 족계에 참여하고 주동하였다. 수연계는 정강과 처남들과의 계인데, 정강의 부가 계답

(契畵)을 마련해 준 것이다(45.5.14). 정강은 외가의 기체에도 참례하였다(48.11.5). 전남 장흥 일원에서 친족집단은 부계(父系)로 폐색되어 있지 않았다.

활발한 친족생활에 이어 치재와 정강의 일상에서 또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변의 양반들과의 교류였다. 장례, 혼사, 수연(壽宴) 등 각양 길흥사에 상호 방문을 강제하는 연망(緣網, network)의 범위와 세력은 19세기까지의 전통시대에 이어 식민지기에도 여전히 가정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였다. 이 연망을 좇아 치재와 정강은 활발하게 이동하였다. 그들의 일상은 오늘날의 현대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잦은 외출과 상호 방문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 연망이 수연이나 농한을 계기로 학맥을 같이 하는 양반들을 모을 때, 그것은 시회(詩會)가 되는 수가 많았다. 치재의 일기는 시회에서 그가 짓거나 남이 지은 수작(秀作)의 시를 자주 소개하고 있다. 1938년 일기의 모두(冒頭)에는 다음과 같은 어느 수연에서의 축시가 적혀 있다(38.1.1).

명도천가에 숨은 선비가 있으니, 위험한 때를 만나 아늑한 곳을 택하여 사는
 구나(明道川邊有逸士 遭時危險擇居幽)
 집이 산 속에 있어 숲과 샘을 즐겼는데, 나이가 회갑에 미칠 만큼 세월이 흘렀
 도다(家留山巷林泉樂 年泊桑蓬歲月流)
 당 앞에서 밤을 좁노라면 어린 아이들이 몰려들고, 매화 아래서 잔을 기울이
 며 훌륭한 선비들과 어울렸네(堂前索栗雛形近 梅下同觴鳳隊遊)
 밥 짓는 연기 긴 물가에 맑은 뜻이 있으니, 이곳에서 소요하는 것 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烟霞長渚清意味 逍遙此外更何求)

요컨대 이들은 난세를 맞아 산림에 은둔하고 있는 일사(逸士)들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결코 한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식만큼은 명확히 난세로부터의 은둔을 자처하고 있었다.

IV. 소중화의 역사학과 철학

전술한대로 제천의 자양영당은 회암, 우암, 화서, 성재를 배향한 충북 화서학과 의 중심이었다. 왜정에서 해방된 후 처음 열린 1945년 9월의 석채례에는 50~60명

이나 되는 선비들이 참례하였다. 그 날의 위용에 치재는 ‘당우4천년화맥(唐虞四千年華脈)’과 ‘조종5백년전형(祖宗五百年典型)’이 복구되는 듯한 감격을 맛보았다(45.9.19). 1947년 2월에는 의암이 지은 『소의신편(昭義新編)]을 읽고, 의암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중화를 존송하고 이적을 물리치고 정학(正學)을 보위하고 사설(邪說)을 배척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로써 ‘4천년당우화맥’과 ‘5백년조종전형’을 보존하였다고 상찬하였다(47.2.7). 이 두 구(句)는 이른바 소중화(小中華)에 몰입해 있는 치재의 역사관을 유감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

정강도 마찬가지였다. 1946년 1월 그는 동계(桐溪) 정온(鄭蘊)의 글을 읽고 선생의 충간(忠肝)이 수백 년이 지나도 죽지 않음에 재삼 감격해 마지않았다(46.1.12). 동계는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하다가 이루지 못하자 덕유산에 은거하여 순절한 사람이다. 주지하듯이 호란 당시 척화파들이 내건 소중화의 대명(大明)의리(大明義理)는 19세기 말까지 조선의 정·학계를 지배한 유일 권력이었다. 치재의 경우 소중화의 대명(大明)의리는 놀랍게도 20세기말까지 고수되었다. 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치재일기』를 간행할 때 치재의 아들 동숙이 쓴 서문에 달린 연기(年紀)는 ‘영력(永曆)347년’이었다.⁹⁾ ‘영력’은 명(明)의 마지막 황제의 연호이다.

소중화의 역사학을 상징하는 다른 하나로서 기자정통설(箕子正統說)을 들 수 있다. 조선왕조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문명이 중국에서 성인 기자가 동쪽으로 건너와 요순(堯舜)의 가르침을 전수한 데서 출발한다고 믿었다. 정강은 매년 일기를 시작할 때 그 해의 연기(年紀)를 밝혔는데, 1944년까지는 그저 간지로만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에는 ‘공부자탄강(孔夫子誕降)2496년’이라고 하였다. 194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947년이 되면 두 개의 연기가 적히는데, ‘기성동도후(箕聖東渡後)3068년, 공부자탄강2498년’이었다. 그것이 마지막 1948년 일기에서는 ‘단기(檀紀)4281년 기성동도3069년 공부자탄강2499년’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정강의 역사 의식은 유동적이었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어쨌든 그에게서 조선의 역사는 중국에서 성인의 도가 전래되어 펼쳐진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치재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기자정통설을 일기에서 언급하였다(46.3.17).

앞서 소개한 수연시에서 나타난 농촌 유생들의 은둔 의식의 기초에는 이 같은

9) 『致齋日記』(一), 「致齋日記序」, 3쪽.

소중화의 역사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 섬 오랑캐가 지배하는 1938년의 당세(當世)는 명확히 성인의 도가 사라진 난세였다.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라(危邦不入)”는 성인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은둔하였다. 간재(艮齋)가 뗏목을 타고 섬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각기 처한 산림에서 몸을 숨겼다. 그러면서 오로지 천명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1938년 6월 정강에게 어느 손님이 찾아와 “세상을 보니 거의 빠져 죽을 근심이 닳아 왔다. 죽적을 어디에 숨길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에 대해 정강은 “오직 수신하면서 하늘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답하였다(38.6.6)

왜정이 종식된 이후도 난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강은 해방이 되자 성인의 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여 “단지 지금부터는 오교(五敎)를 닦기 원하는데”라고 노래하였다(45.8.1).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또 다른 오랑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난세였다. 정강의 은둔 지향은 더욱 강해졌다. 1945년 9월 정강의 아들이 부락민의 투표로 부락인민위원회(部落人民委員會)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소식을 들은 정강은 아들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명하였다. 11월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왜정이 물러가고 독립 건국을 당하여 국민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변의 힐난에 정강은 “지금은 우리 무리가 몸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거나(45.9.22), “우리 무리는 단지 세상을 등지고 몸을 닦으며 대명(大命)을 기다릴 뿐이다”라는(45.10.20)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같은 은둔 지향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이자 신앙이었다. 치재와 정강은 하늘[天]을 믿었다. 성리학이 가르치는 하늘은 ‘지극한 이치’이다. 그것은 삼라만상이 제자리에 있게 하는 소이연(所以然)임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무상한 변화를 주관하는 소유연(所由然)이다. 중국과 조선의 성리학은 그것을 두고 태극(太極)이라 하였다. ‘지극한 이치’로서 태극은 곧 인(仁)이다. 성리학자인 이상, 치재도 이 같은 성리학의 기본 교의를 신봉하였다. 그는 태극을 두고 “본성(本性)의 묘묘(妙妙)함으로서 주재(主宰)하고 운용(運用)함이 자연스럽고 정교한 것”이라 하였다(47.1.27). 1946년 11월에 지은 어느 시에서 치재는 “지극한 하늘이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 곧 인(仁)이니라”고 노래하였다(46.11.25).

그런데 치재에게서 하늘의 ‘지극한 이치’는 은밀하고 추상적이지만은 않았다. 치재는 하늘을 ‘명물자(命物者)’, ‘조화옹(造化翁)’, ‘화옹(化翁)’, ‘천공(天公)’, ‘천

옹(天翁)’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이 다양한 별칭들이 상징하듯이 치재에게 하늘은 하늘 어딘가에 앉아 있는 노인으로서 구체적인 인격이었다. 그 노인은 천문기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사회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였다. 전통시대 농촌 유생들의 일기가 천문기상의 변화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점은 치재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더하여 치재는 천문기상의 변화를 하늘에 계신 조화옹의 작품으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바람이 세계 분 어느 날의 일기에서 치재는 “대풍이 그치지 않음이 마치 회수(淮水)의 전투와 같아서 하늘의 뜻이 끝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37.3.15). 1945년 2월은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한창이어서 전시통제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궁하고 인심도 무척 흉흉한 시절이었다. 그 어느 날 치재는 일기에서 “화옹의 배포(排布)를 실로 짐작하기 어렵다. 성패리둔(成敗利鈍) 간에 오로지 명물자의 처분을 믿을 뿐이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였다(45.2.24).

정강에게서 하늘은 치재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인간세상을 주관하는 인격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강은 하늘을 ‘천명(天命)’, ‘상제(上帝)’ 등으로 불렀다. 1945년 7월 소련 군대가 만주와 조선으로 출격하기 시작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일제가 마지막 발악으로 조선인을 대거 동원하는 일이었다. 정강은 “탄식하여 어찌할 것인가. 오로지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45.7.7). 천명을 기다림은 때때로 간절한 기도로 나타났다. 1945년 1월 정강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일제의 징용과 공출을 금지해 주길 바라는 기도문을 작성하였다. “왕년에 아침저녁으로 홀로 앉아 묵도하는 글을 지었는데 지금 개정한다. 앞드려 비읍건대 상제께서는 하감하시어 즉시 대인영웅(大人英雄)에게 명하시어 저들의 조선인민 징용과 미국 공출을 금단케 하시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소서”(45.1.20).

이처럼 하늘에 대한 기도는 ‘대인영웅’의 출현과 등극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하였다. 그 점은 치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강의 ‘대인영웅’은 치재에서는 ‘진인(眞人)’이었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도 세상은 좌우익의 대립으로 소란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의 심사를 치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아, 옛 성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을 하늘로 삼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하니 나라가 평안하였는데, 지금의 천하는 그렇지 않아 이 백성이 임금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어느 날이 되어야 진인이 번개처럼 나타나 바람을 일으켜 안

개와 구름을 날려 보내고 천하를 정돈하고 만방의 물 백성을 평화롭게 할지 모르겠다”(45.12.10). 이 언저리에서 치재의 성리학은 현저히 진인 출현을 고대해 온 전통 미륵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V. 역사와 함께 오래된 원수

1945년 5월 정강은 파리채로 파리를 잡다가 문득 파리를 일본으로 여겨, 들고 있는 파리채가 장검(長劍)으로 변하여 섬오랑캐의 두목들을 섬멸해 버리는 장면을 공상하였다(45.5.20). 정강에게서 일본은 파리와 같이 더럽고 탐욕스런 존재였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 원수의 나라였다(45.5.27). 그 원수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축시 가운데 정강은 일본을 “조선 세세(歲歲) 역사의 구적(仇敵)이며, 동아의 집집마다 마음의 원수”라 하였다(45.7.11). 어느 친구가 보내온 축시 가운데는 “왜노(倭奴)를 두고 사람이라 할 수 없지, 자꾸만 악독한 피를 지어내지”라고 하였다(45.8.14).

일본을 ‘흑치(黑齒)’, ‘칠치(漆齒)’ 등으로 부른 치재도 일본을 극도로 증오했다. 일본이 패망할 당시를 기록한 그의 「을유해방기(乙酉解放記)」는 일본의 최악 상으로서 1) 산림천택을 임의로 점유하였으며, 2) 나라의 재산과 백성의 산업을 횡탈하였으며, 3) 역(役)이 번중하고 부세가 무거웠으며, 4) 창씨개명을 강요했으며, 5) 조선말을 없애려 했으며, 6) 쓸 데 없이 세밀한 법령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 등을 열거하였다.¹⁰⁾

오늘날 한국인들이 널리 기억하고 있는 일본의 토지 수탈은 위의 2)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뒤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동 사업의 농촌 말단에서의 실태를 『치재일기』는 극히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치재가 중원군 사미면 오당리에 거주할 때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토지 수탈은 문자 그대로의 ‘횡탈(橫奪)’은 아니었다. 1914년 마을을 통과하는 신작로가 닦이게 되자 치재의 전답 2필지와 택지 일부가 강제 수용되었다. 면사무소 직원의 강박에 못 이

10) 『致齋日記』(二), 「致齋集」, 「乙酉解放記」.

겨 치재는 토지수용서(土地收用書)에 지장을 찍어주고 보상금을 받지만,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이 도로가 “생활의 이해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고 그는 분노하였다(14.4.25).

『정강일기』에서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 나온다. 1938년 6월 마을 앞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대를 들고 나타났는데, 남포선(南浦線) 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측량원들이었다. 그 때에 ‘토지의 침입’이 다대(多大)하였고 그에 따라 민원이 분분하였다. 남포선 부설을 주창한 사람들은 면(面)의 관리들과 협의원(協議員)들이었다. 정강은 “내가 마을에서 말하기를 그 원통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라고 하였다”고 일기에 적었다(38.6.8). 그것은 ‘식민지적 근대화’, 곧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었다.

일기가 없어 정강의 경우는 알 수 없지만, 193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치재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이 같은 문명사 수준의 저항이었다. 농촌사회의 일상은 여전히 ‘전통’의 리듬에 맡겨져 있었다. 외래 권력인 총독부는 농촌사회의 일상에까지 지배의 촉수를 뻗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농촌 주민들의 은둔 지향과 어울려 농촌사회에는 마치 ‘식민지적 평화’라 할 만한 역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앞서 소개한 어느 수연시에서 묻어나는 농촌사회의 정겨움이랄까 요족함은 그러한 역설의 산물이었다.

그렇지만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의 발발과 뒤이은 전시동원체제의 강화는 ‘식민지적 평화’의 모든 일상을 부정하였다. 말의 진정한 의미의 ‘식민지적 국가(colonial state)’가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정비되어 갔다. 농가는 몇 호씩 묶여 애국반(愛國班)으로 조직되었으며, 동리 내의 자연부락이 구(區)라는 행정단위로 파악되었다. 구정 과세가 금지되고 신정 과세가 강요되었다. 백의가 금지되고 색의가 강요되었다. 상투가 잘려나갔으며, 창씨와 개명이 강요되었다. 농촌 주민들은 수시로 시국강연에 동원되었으며, 할당된 양의 새끼와 가마니를 짜야했다. 1941년부터는 쌀의 강제수매가, 곧 공출이 시작하였다. 징발과 배급은 쌀을 넘어 온갖 생활물자의 광범한 범위에 미쳤다. 간이생명보험(簡易生命保險)과 같은 강제저축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곤핍해졌다.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은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집과 알선의 경로로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으로 또 북선(北鮮)으로 동원하더니, 1944년부터는 공식적인 징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징병제가 같은 해에

시행되어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군으로 끌고 갔다.

이 모든 일은 치재와 정강의 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의 일기는 농촌 말단에까지 관철된 전시통제체제의 실태에 관한 한 다른 어느 자료보다 생생한 증언이다. 1939년 3월 외출 중이던 치재의 장남 동숙의 상투가 잘려나갔다(39.3.3, 39.3.8).¹¹⁾ 치재는 면의 주재소(駐在所)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였다(40.6.11). 치재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둘째 아들 동직이 일본으로 징용당한 일이었다(45.4.8). 정강가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1945년 1월에 두 조카가 징용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일본 오사카로 갔다(45.1.7; 45.1.9). 드디어 둘째 아들 동홍이 해군지원병 모집에 걸렸는데, 비록 지원이라 하나 강제나 다를 바 없었다. 다행히 동홍은 신체검사에서 색맹으로 판정 받아 무사 귀환하였다(45.1.10).

일본을 역사와 함께 오래된 원수로 간주하는 반일 감정은 전시동원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깊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민족의식과 같은 것이었을까? 이는 의외로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1911년부터 51년간이나 이어진 치재의 일기에서 ‘민족’이란 단어는 관찰되지 않는다. 치재는 ‘민족’이란 용어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러일전쟁(1904)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민족’이란 외래어를 조선의 보통 사람들이 1945년 이전에 들을 기회는 별로 없었다. 정강의 1945년 이전 일기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이다. 『정강일기』에서 ‘민족’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47년 8월인데, “본 면에서 좌익파를 금단할 뜻으로 청년민족단(靑年民族團)을 조직하였는데, 소위 단원이란 자들의 민간 작폐가 많다”고 하였다(47.8.7). ‘청년민족단’에 정강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단체명의 일부로 전해진 ‘민족’이란 외래어에 정강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치재일기』는 1919년의 3·1운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1919년 2월 2일의 일기는 “오늘은 인산(因山)이다. 신민(臣民)의 원통한 정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라고 하면서 고종의 장례를 맞아 신민으로서 애도를 표하였다(19.2.2). 그렇지만 그를 계기로 터진,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2월 11일에는 가까운 충주읍에서도 일어난, 만세시위에 대해 치재는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¹²⁾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 그에 대해서도 『치재일기』는 아

11) 이후 김동숙은 자신의 상투를 복구하였다. 아마 해방 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12) 충주읍에서의 만세시위 등에 관해선 다나카 류우지, 앞의 논문을 참조

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치재가 오늘날과 같은 강렬한 민족의식을 보유했다고 판단할 적극적인 근거는 그의 일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치재와 정강에게서 ‘민족’이란 말을 대신한 것은 ‘우리사람(我人)’, ‘우리나라(我國, 吾邦)’, ‘동포(同胞)’, ‘선인(鮮人)’ 등이었다. 조선왕조 시대부터 널리 쓰인 ‘동포’라는 말에는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성품을 내렸다는 성리학의 교의가 내포되었다. 치재가 1948년의 일기에서 쓴 ‘동포’의 뜻도 그와 같았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 3천리 안의 동포이다. 함께 하늘의 성(性)을 부여받고 당우(唐虞) 3대 이래의 심법(心法)을 전수해 온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능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살육함이 원수와 같이 하는가”(48.11.9). 이 같은 동포론은 16세기에 조선성리학의 틀을 놓은 퇴계가 그의 ‘성학십도설’에서 “사람들은 나의 동포”(民吾同胞)라 한 것과 그리 멀지 않다.

앞서 소개했듯이 정강이 1948년 일기에서 ‘단기(檀紀)’를 칭한 것의 의미는 작지 않아 보인다. 1947년 9월 어느 지인이 계룡산에 새로 건립된 단군묘(檀君廟)를 노래한 자작시에 대한 품평을 요청했는데, 정강이 사양했으나 거절하지 못했다. 연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47.9.29).

동방에 처음 나타나 지극한 표준을 세웠으니(首出東方立極眞)
 단군의 궁전에 무궁화 핀 봄 영원하여라(檀宮永帶槿花春)
 천년 세월에 먼저 된 성인이 되시어(千年曆數爲先聖)
 백세에 미친 높은 영으로 후인을 깨우쳤네(百世崇靈啓後人)
 보배로운 제도를 누가 미혹의 역사라 했는가(寶典誰言迷往史)
 영웅 바람 일으켜 원컨대 미친 세상 쓸어소서(英風我願掃狂塵)
 숙연히 계룡산 아래에 단군묘 섰으니(肅然神廟鷄龍下)
 남토 물 백성의 사모함이 새롭구나(南土黎民愚慕新)

여기서 단군은 우리 동방에서 지극한 표준을 처음 세운 성인으로, 곧 성리학적 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 단군에게서 정강은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버릴 영웅 출현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보배로운 제도를 누가 미혹의 역사라 했는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강은 단군을 실제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동방 문명의 시조가 기자에서 단군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강에게서 오늘날과 같은 민족의식은 막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VI. 금수가 찾아오다

1945년 7월의 해방은 거꾸로 매달려 있던 사람이 풀려난 것과 같은 안도요 환희였다. 치재와 정강을 둘러싼 농촌사회는 삽시간에 축제의 분위기로 돌아섰다. 마을마다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배반(杯盤)이 질펀한 잔치를 벌였다. 그 사이 왜정의 주구가 되어 공출, 징용 등에 악독하게 굴었던 면장 이하 조선인 관리들이 민중들로부터 혹독하게 보복을 당하였다. 도망친 사람들의 가옥과 가산은 파괴되었으며, 곳곳에서 맞아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반촌으로서 자치 능력을 갖춘 마을에서는 동장과 구장들이 스스로 잔치를 베풀어 마을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였다. 그런 가운데 일본으로 끌려간 청년들이 하나씩 돌아왔으며, 그 때마다 집집이 벌이는 잔치로 동네가 연일 흥겨웠다. 치재의 둘째 아들 동직은 해방 후 2주일 만에 일본에서 무사 귀환하였다(46.7.25). 정강의 조카는 1946년 11월이 되어서야 복귀하였다(46.11.18). 그 사이 정강의 가슴은 검게 타 있었다.

해방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불과 두 달 뒤, 치재의 일기는 위로는 법을 집행하는 관이 없고 아래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날로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세상을 개탄하고 있었다(45.9.13). ‘식민지적 규율’의 해체는 도적의 발흥, 산림의 도벌, 물가의 폭등, 전염병의 유행을 초래하였다. 1946년 2월 치재가의 손녀 하나가 홍진으로 죽었다(46.2.7) 그 해 봄의 보리고개는 전년의 흉년으로 유난히도 넘기 힘들었다. 겨우 보리고개를 넘기자 호열자가 돌기 시작했다. 그 해 6월의 일기에서 치재는 “오호, 하늘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함이 어찌 이렇게 심한가”라고 울부짖었다(46.6.21).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우울하게 만든 것은 남한과 북한에 진주한 미국군과 소련군의 대립이었다. 치재는 해방 후 불과 한 달 만에 “오호, 비록 일본이 망하였으나 영미와 소련의 교전이 충분이 우려된다. 두렵고 두렵다”라고 일기에 적었다. 1947년 3월의 일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교전이 임박했다는 세인들의 소문이 자자하여 억조창생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는 물과 같다”고 기록하였다(46.3.10). 정강도 마찬가지였다. 1947년 4월 제2차 미소공회(美蘇共委)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정강은 양자가 갈라선 다음 전쟁을 벌일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47.4.1).

미국과 소련은 호랑이들이었다(46.3.17). 두 호랑이가 벌일 전쟁이 두려운 것만

도 아니었다. 남한에 진을 친 미국은 일본보다 더 지독한 야만의 나라였다. 치재가 보기에 미국은 인간이 아니라 금수(禽獸)였다. 물러간 일본은 이적(夷狄)이었다. 이적은 인간과 금수의 중간이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아예 인간의 반대인 금수였다(48.9.1). 1946년 12월 미국이 전국에 과자를 배급하였다. 그 때 강화군만이 과자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치재는 그 뜻을 장하게 여겼다. 미국의 향기로운 과자를 먹으면 정신이 죽어 반드시 뒷날 매국의 빌미가 된다고 경계한 것이다(46.12.15). 같은 무렵, 서울에서 미국군과 우리 여자가 상통하여 아이를 낳았다. 치재는 인종이 교잡(交雜)하니, 짐승이 인간을 핍박함이 극에 달했다고 개탄해 마지않았다(46.12.27).

치재와 정강과 같은 위정척사 계열의 농촌 유생들은 일본이 패망하자 36년간 끊어졌던 ‘당우화맥’과 ‘조종전형’이 회복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들은 천명을 받은 ‘대인영웅’이 나타나 임금으로 등극한 다음, 임금은 임금답고(君君) 신하는 신하다운(臣臣), 아버지는 아버지답고(父父) 자식은 자식다운(子子), 오류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었다. 그런 조짐이 없지는 않았다. 1946년이 되자 사람들은 다시 구정 과세로 돌아섰으며, 마을마다 존장(尊長)을 찾는 세배의 행렬이 이어졌다. 성현을 배향한 각처 사우와 영당에서의 제사도 더욱 성대해졌다.

그렇지만 이 모든 조짐은 금수의 나라 미국 때문에 막혀 버렸다. “아, 하늘이 우리의 도(道)를 도우지 않아 짐승의 발굽이 경내(境內)에 충만하여 4천년화하정맥과 5백년조종전형이 영원히 끊어지고 요기(妖氣)가 성행하니, 이를 누가 능히 막을 손가”(47.8.22). 그 요기는 구체적으로 야소교(耶蘇敎)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야소교인들이 치재를 찾아 권면(勸勉)하였지만, 치재는 들은 척도 없었다(상동). 정강은 해방 이전부터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 “미국이 상륙하면 우리사람을 먹여 살리겠지만, 야소교의 화(禍)가 왜환(倭患)보다 더 심하니 이를 어찌 하겠는가”(45.5.27). 그렇게 미국이 들어온 것은 더 큰 시련이었다. 이를 두고 치재는 “누가 알았겠는가, 여우가 물러가니 늑대가 닥아 온 것을”이라 하였다(47.8.7).

미국에 대한 반감은 미군정의 공출 정책으로 그 도를 더하였다. 미군정은 당초 공출을 폐지했다가 도시부로 식량 공급이 두절되고 미가가 폭등하는 부작용을 맞아 공출을 급히 복구하였다. 식민지기와 달리 쌀만이 아니라 보리와 밀도 공출하였다. 1946년 7월 치재는 “면사무소의 공출 독촉이 성화와 같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였다(46.7.9) 이 같은 조선시대 이래의 상투적인 비판은 조금 뒤에는

“미군정의 공출이 칠치의 행정보다 더 심하다”는 거센 반감으로 발전하였다(47.5.3).

정강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오면 공출을 폐지하리라고 기대했던 그는 미군정이 공출을 시행하자 “미국 또한 왜이다”라고 하였다(46.3.4). 그 공출에 반발하는 농민들을 선동하여 남로당(南勞黨)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1946년 9월의 일이었다. 폭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그 와중에 정강은 “양곡 공출령이 왜정 때보다 오히려 심하다. 도와 군청의 서기배 수십 명이 마을마다 들어가 집집을 수색하고 사람들을 두들기는데, 이라고서도 건국인가, 이라고서도 독립인가”라고 탄식하였다(46.12.17). 정강의 건국에 대한 조소는 이후에도 몇 차례 반복되었다. 어느 날에는 “건국의 정치가 이와 같은가, 슬프고도 우습다”고 하였다(47.10.3). 성인의 정치란 무엇인가? 오로지 부세를 박(薄)하게 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할 일이다. 정강은 성리학이 가르치는 이 같은 도덕정치의 입장에서 저도 모르게 좌익으로 기울고 있었다.

1948년이 되자 건국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마을마다 21세 이상의 남녀들이 ‘국민등록’을 하였다. 양력 5월 9일에 ‘남선단독정부의 수석자(首席者)’를 선거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 소식을 들은 정강은 “남녀 할 것 없이 한문도 언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투표를 한단 말인가”라고 기막혀 하면서, “나는 오직 상제의 선택과 명령을 쳐다볼 뿐이다”라고 하였다(48.2.23). 투표일이 되었다. 정강은 동리의 남녀노소와 더불어 비를 무릅쓰고 투표소에 갔다. 관리들이 불응하는 자는 엄중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일의 일기는 “대개 처세의 어려움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48.4.2).

치재가는 1948년에 들어 우환의 연속이었다. 3월에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죽었다. 큰아들도 병이 들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치재는 4개월째 두문불출하다가 투표일을 맞았다. 그 역시 기권은 불가하다는 소문을 듣고 투표소에 나갔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투표를 마쳤다. 치재가 못 나올 줄 알고 그의 친구들이 한 짓이었다(48.4.2). 그렇게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뒤죽박죽이었다.

VII. 남선단독정부의 수립

동·서양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세사회에서는 지배신분이 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강제력을 사적으로 행사하였다. 그에 비해 근대국가는 사회에 내재한 일체의 폭력을 회수하여 독점한 유일의 강제력이다. 근대국가의 성립은 사회로부터 관료제, 재판기구, 상비군이라는 강제력이 추출되어 순환하는 과정이었다. 그 ‘強制抽出循環(coercion-extraction cycle)’의 과정은 폭력만이 아니라 특정의 이념으로 지지될 때 정당하였다. 근대사회의 인간들은 천부인권, 사유재산권, 주권재민 등의 원리와 이념에 입각하여 근대국가의 강제력 추출과 행사에 동의하였다.

이 같은 서양근대사의 경험을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크게 말해 국가의 강제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이 바깥 세계에서 들어왔다. 개항기와 식민지기를 거쳐 천부인권 등의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회계층이 조금씩 성장하였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역이다. 그렇지만 해방정국까지도 천부인권 등의 이념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낯선 것이었다. 근대국가를 성립시킨 ‘강제 추출순환’을 한국근대사에서 상정하기 힘든 것은 그 이념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가운데 그 순환을 뒷받침할 사회계층의 성립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회로부터 추출되었다기보다 위로부터 사회를 덮는 식으로 생겨난 국가라고 할 수 있다.¹³⁾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날 치재의 마을에서는 ‘남선독립건국식(南鮮獨立建國式)’을 축하하여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치재는 그 흥겨움을 “남선 도처에 오늘처럼 놀지 않은 곳이 있으랴”고 하였다(48.7.11). 그렇지만 치재의 예상과 달리 건국에 대한 축하는 전국적이지 않았다. 당일의 정강도 “소위 남선정부(南鮮政府)가 오늘 건립되었다. 대통령에 피선된 이승만이 취임식을 거행하였다”고 일기에 적었다(48.7.11). 그렇지만 떠들썩한 축제는 없었다. 정강의 거주지 장흥에서 건국을 축하하는 행사는 녁 달이 지나서야 열렸다. 그것도 관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그에 대해 정강은 “각리의 남녀노소가 본면 사무소와 지서에 운집하여 조선건립정부를 축하한다고 한다. 이 역시 외이(外夷)의 풍속이다.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백성을 동원하여 모으고 흠고 함이 폐단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48.11.15).

새로운 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란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 그저 ‘남선정부’

13) 이를 두고 김기승(외)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지만 어느 면에서는 주어진 국가”라고 하였다. 김기승(외), 앞의 책, 33쪽 참조

또는 ‘남선단독정부(南鮮單獨政府)’가 익숙한 호칭이었다. ‘남선(南鮮)’을 치재는 ‘남선(南線)’으로도 표기하였다. ‘38도선이남’이란 뜻이었다. 1962년까지 이어진 치재의 일기에서 ‘대한민국’이란 정식의 국호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의 농촌 주민에게 새로운 나라의 국호는 물론, 그 나라의 이념이 무엇인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지역마다 달랐다. 치재 자신을 포함하여 충북 증원군 일대는 환호한 반면, 정강 자신을 포함하여 전남 장흥군 일대는 침묵하였다.

치재와 정강 사이의 이 같은 차이는 이승만에 대한 평가에서 이미 두드러졌다. 치재에게서 이승만은 일본을 섬멸하고 조선을 복구한 영웅이었다. 일찍이 ‘독립단의 주모(主謀)’로 해외에서 방랑한지 40년에, 그 ‘와신상담’의 세월에 ‘피 1말과 쓸개 1되’는 마셨을 이승만이었다. 비록 영미에 의지했다 하나 그가 ‘고심열성(苦心熱誠)’으로 조선의 옛 강토를 회복한 것은 만세에 전할 일대 쾌거였다(45.7.14, 45.9.7). 1948년 6월 이승만이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치재는 다시 한번 비슷한 감격을 일기에다 토로하였다(48.6.16). 반면에 정강은 이승만에 냉담하였다. 그의 일기에서 이승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946년 이승만이 정읍에서 행한 ‘남조선단독정부 건립의 실’과 관련해서였다(46.5.19). 이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강은 “과연 그렇다면 승만이 장차 어찌 민심을 위로하고 보답하겠는가”라고 하였다(48.6.18). 명자(名字)만을 칭하는 것, 그것은 전통 양반사회에서 비칭(卑稱)일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초래된 것일까? 정강이 치재보다 위정척사에 보다 철저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대로 정강은 건국을 축하하기 위해 남녀 노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를 ‘외이의 풍습’으로 간주했다. 1946년 7월 해방 1주년을 기념하여 사람들이 장을 치면서 학교운동장에 모여 기념식을 거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강은 그것을 ‘왜노가 남긴 풍습’이라 하였다(46.7.19). 치재의 위정척사는 그 정도까지 완고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치재 역시 당대를 대표하는 위정척사의 한 사람이었다. 정강과 마찬가지로 그는 죽을 때까지 상투와 백의를 고집하였다. 일체의 양물을 거부하기를 고무신조차 신지 않고 손수 삼은 짚신으로 일관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성립으로 치재의 세계관이나 국가관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했지만, 그의 충실한 국민을 자임하지는 않았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麗順叛亂)이 터졌다. 소식을 접한 그는 “어딘가 청산으로 건정(乾淨)한 곳을 준비하여 우리 수십 동지들이 함께 들어갈 곳이 없는가”라고 궁리하였다(48.10.7.) 국민개병(國民皆兵)을 규정한 병역법이 제정되어 ‘강제모병’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가 왕년에 행한 ‘징병’과 별 다를 바 없었다. 대한민국이 행한 ‘공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건국’이라면서 ‘공출’이라니! 그것은 성인의 정치가 아니었다. 이 모든 점에서 치재와 정강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치재와 정강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은 크게 말해 일종의 우연이었다. 그것은 한 사람은 충북에, 다른 한 사람은 전남에 살았다는 주거의 차이에서 비롯된, 개인적으로는 우연이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해방정국에서 충북은 전국에서 우익이 가장 우세한 도였다.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덜 받아 전통사회의 질서가 가장 강하게 보존된 곳이라 하였다.¹⁴⁾ 해방과 더불어 좌우익의 대립은 점차 치열해져 갔다. 치재는 그것을 ‘민주’와 ‘공산’의 대립으로 표현하였다. ‘민주’와 ‘공산’이 어디서 생겼는지 치재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민주’임을 자처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였다. “대저 양반이면 민주이고 상민이면 공산”이기 때문이었다(46.10.17).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이유가 아니었다. 양반이면서 ‘공산’을 지지한 사람도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양반이면 공산이고, 상민이면 민주”인 곳도 있었다.¹⁵⁾ 치재가 스스로 ‘민주’를 자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그의 친척이, 그의 친구가, 그의 동네가, 그의 지역이 대개 우익으로서 ‘민주’에 속했기 때문이다.

정강의 경우는 거꾸로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요기’로 간주했고(46.3.20), 좌익에 대해서는 “말을 몰면서 방울소리나 듣는 무리”로 멸시하였다(47.3.5). 그럼에도 그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냉담했던 것은 그의 주변이 온통 그러했기 때문이다. 식민지기 전남 장흥에서는 사회주의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정강이 거주한 용산면이 두드러졌다. 해방 후에는 ‘제2의 모스코바’라 할 정도로 용산면의 좌익 세력은 강력하였다.¹⁶⁾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

14) 다나카 류우지, 앞의 논문, 339쪽.

15) 경북 안동군 풍산읍이 그러하였다.尹學準(著), 『나의 양반문화 탐방기 I』(길안사, 1994), 제4장 ‘양반과 공산주의’ 참조.

대한민국의 건국은 적나한 폭력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의 행패가 심하였다. 『정강일기』에서 정강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의 자제로서 순사배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 총살을 당한 사람의 수를 헤아리면 모두 9명이나 되었다. 폭력은 폭력을 불렀다. 좌파의 작폐도 적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이 지역이 침묵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충북과 전남은 왜 그리 달랐을까? 연구자들은 흔히 식민지주제의 발전 정도의 차이를 거론하지만, 그것은 90보와 100보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그 기원이 조선성리학만으로는 포괄되지 않은,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무척 오래된 전통으로부터의 다양한 작용이 있었다. 전술한대로 대한민국은 그 전통으로부터 추출된 국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사회를 위에서부터 덮은 국가였다.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전통의 차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위정척사 화서학과의 전통을 공유한 치재와 정강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그에 속함이 우연일 수밖에 없는, 다른 복잡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VIII. 전통의 행방: 결론을 대신하여

조선성리학의 잔영은 1960년대까지도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치재와 정강은 그 전국적 분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 중에는 학맥의 정통성이나 학문의 성취도에서 치재나 정강보다 한 수 위인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 모두는 해방, 분단, 건국, 6·25전쟁, 4·19학생의거, 5·16군사혁명으로 이어진 격동의 역사에 침묵하였다.¹⁷⁾ 그들은 완고했지만 현실에 대해 발언할 능력이 없었다. 그들의 정신과 현실 사이에는 매우기 힘든 간격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치재와 정강 두 농촌 유생의 정신세계도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완고했지만 격동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적극적으로 거

16) 金英喜, 앞의 논문, 103쪽.

17) 琴章泰·高光植, 『儒學近百年』(博英社, 1984), 276쪽.

부할 능력을 결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은둔을 자처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소극적인 적응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이 건국기의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점은 대한민국이 사회로부터 추출되었다기보다 사회를 덮은 방식으로 생겨났다는 관계를 일정 정도 대변하고 있다.

‘전통’은 지역별로 다양한 요소의 복합이었으며, 이에 건국을 맞은 지역사회의 반응은 차별적이었다. 동일한 정신세계를 지닌 치재와 정강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상이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종래 건국기의 정치 무대에 ‘민주’와 ‘공산’이란 두 주역만을 설정하고 그들의 싸움만을 그렸지만, 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전통’이란 또 하나의 주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통’은 건국 이후 어떻게 되었나? 최후의 성리학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짐에 따라 ‘전통’도 소멸하고 말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소견을 마지막으로 가설의 형태로나마 밝혀두고 싶다. 필자가 보기에 그 ‘전통’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근·현대사 교과서나 교양 역사서를 들치면, 그들의 살아 있는 숨소리를 듣기가 조금도 어렵지 않다.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겉모습을 벗기면 그냥 같은 존재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대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¹⁸⁾ 이는 치재와 정강이 이야기했던 ‘남선단독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전통’을 넘어 그 자신에 걸 맞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였다. 치재와 정강이 즐겨 구사했던 ‘우리사람(我人)’, ‘우리나라(我國, 吾邦)’이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역사 교과서가 즐겨 사용하는 역사의 주체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체는 ‘우리의 토지’와 ‘우리나라의 쌀’을 약탈하였다.¹⁹⁾ 이 같은 ‘우리’나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에서 너와 나는 처음부터 혼연의 일체로서 초역사적인 통일체이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쓰기에서는 상이한 이해관계의 자립적인 인간들을 하나의 조화 질

18) 예컨대 6종의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넓은 보급률을 보이는 교과서의 해당 기술은 다음과 같다.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세력들의 반대 속에서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김한중·홍순권·김태웅·이인석·남궁원·남정란,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 2007), 264쪽.

19) 일레로 주진오·신영범·김진규·민병관·조동근,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166~167쪽 참조.

서로 통합하는 새로운 정치이념의 구현으로서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이란 발상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다.

치재와 정강의 시대와 겉모습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서투려했던 ‘민족’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사’는 조선성리학이 내걸었던 소중화의 대명의리(大明義理)를 민족주의로 대체했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 ‘국사’는 ‘전통’이 남긴 역사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집어내 거기에다 민족주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예컨대, 본문에서 소개한대로, 치재와 정강이 분노한 것은 일제에 의한 강압적 개발과 그에 따른 전통 문명의 파괴였다. 당초 그러했던 분노를 ‘국사’가 ‘우리의 토지’와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로 기억을 바꾸는 것은 1960~1970년대의 일이다.²⁰⁾

이와 같은 식으로 현대의 ‘국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추적은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어쨌든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에 걸 맞는 자신의 건국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당초 사회로부터 추출되었다기보다 사회를 덮은 방식으로 생겨난 국가에 불가피한 업보인가? 여기에 외견상 화려해 보이는 60주년 대한민국의 숨길 수 없는 초라함이 있다.

참고문헌

- 『致齋日記』(一)·(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定岡日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간행자료.
- 金英喜, 「일제 말기 향촌 儒生의 ‘日記’에 반영된 현실인식과 사회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4, 2000, 91~130쪽.
- 琴章泰·高光植, 『儒學近百年』. 서울: 博英社, 1984.
- 김기승·오문화·이승현·임형진·장현근·조현수·홍원표, 『국가건설사상Ⅱ』. 서울: 인간사랑, 2006.
- 김한중·홍순권·김태웅·이인석·남궁원·남정란,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금성출판사, 2007.

20) 일제가 대량의 토지와 쌀을 수탈했다는 기억이 성립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영훈, 「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과 그 신화성」, 『한일 연대21』(여음),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뿌리와 이파리, 2008), 99~129쪽.

김희태, 『『定岡日記』: 일제말~광복 직후 장흥 유생의 일기』. 역사문화학회(편), 『지방사와 비장문화 I』. 서울: 학연문화사, 1998, 359~373쪽.

다나카 류우지(田中隆二), 「일제하 해방후 농촌 지방유생 金麟洙의 시대인식」. 『釜大史學』 22, 1998, 335~358쪽.

尹學準(著), 『나의 양반문화 탐방기 I』. 서울: 길안사, 1994.

이영훈, 「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과 그 신화성」. 『한일. 연대21』(역음),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8, 99~129쪽.

주진오·신영범·김진규·민병관·조동근,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국 문 요약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 남부의 주민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념으로 분열하였다.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이 논문은 이 같이 단순화되어 온 건국기(1945~1948)의 정치사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이라는 제3의 집단을 상정하였다. 양적으로 오히려 다수였을 이들 제3의 집단은 조선성리학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건국기의 정치사는 이들 집단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풍부하게 재구성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대에서 건국기에 치재(致齋)와 정강(定岡)이란 호를 가진 두 농촌 선비가 한문으로 쓴 일기를 분석하였다. 두 성리학자의 생활방식, 인간관계, 역사관, 철학은 19세기까지의 전통 성리학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정치의식은 근대적 민족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해방 후 일본을 대신하여 찾아온 미국은 일본보다 더 나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1948년에 세워진 나라의 국호는 물론 새로운 정치이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3의 집단이 보인 이 같은 정치의식을 확인한 위에 이 논문은 이미 일부 정치학자들이 제기한, 대한민국은 사회로부터 도출되었기보다 사회를 위로부터 덮는 방식으로 성립한 국가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후에도 전통주의의 역사적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전통주의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건국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이

자신에 적합한 건국사라는 기억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9. 3. 23.

● 게재확정일 : 2009. 6. 1.

● 주제어(keyword) : 성리학적 전통(Confucian tradition), 전통의 역사적 역할(historical role of tradition),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 건국사(history of nation building).